

‘목포시·신안군 통합’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000억 원 전망

행정편의 9672억원, 2027년 관광객 수 2200만명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목포대 김병록 교수는 최근 목포대에서 열린 2차 중간보고회에서 시·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행정편의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의가 9672억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000억원,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합시 비전으로는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역사문화와 해양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전략과 상생협력과제 11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26건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합사례분석과 주민의견 조사결과, 부분별 통합효과분석, 통합시 비전과 상생협력과제 도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주민 설득 논리도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6년 7월 1일 목포신안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서 단계별 추진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2단계로 무안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명문화 한 청구서가 청원권에 양보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목포신안 통합 시 각종 특례를 추가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 상생과제와 미래 비전을 담은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주민설

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 22일 오픈

판매상품 구축·입점업체 사전교육 등 준비 ‘착착’



무안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을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맛플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지역의 60여 농가·업체가 참여해 160여개 판매상품을 구축했으며, 연중 수시로 입점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점자격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재배·생산·가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다. 입점가능 품목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

군은 전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체계와 마케팅 계획, 상품관리, 배송관리, 고객 응대 요령 등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김산 군수는 “현재 농특산물 유통과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맛플무안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 열고 의견 청취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등 안건 놓고 다양한 상가 활성화 방안 논의

영암군 16일 군청에서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사업 설명과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군수 직속의 상가 활성화 추진단은 상인과 주민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논의·추진 등을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원들은 주민주도로 이뤄지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영암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삼호읍시장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승호 삼호읍상인회장은 “영암의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발굴로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

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위생팀을 신설해 ‘영암군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음식 메뉴 개발·공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시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추진단 세부 운영 방침도 명문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암군은 이날 상가 활성화 추진단의 기능 강화, 의견수렴 폭 확대 등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대표 등을 위원으로 확대 위촉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봄 보약 ‘가시 없는 이형두릅’ 영광서 본격 출하

영광에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산재의 제약이라 불리는 ‘봄 보약’ 두릅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농가 17곳으로 구성된 영광 두릅 작목반에서 가시 없는 ‘이형두릅’ 출하가 한창이다.

영광군의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받아 재배한 이형두릅은 일년에 봄·여름 두 번 수확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다.

두릅은 칼륨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염증을 억제해 주고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다량 함유된 사포닌은 혈당과 혈중 지질을 낮추고 모발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 이형두릅 작목반은 올해 재배면적 3305.7㎡에서 원순 300kg을 우선 수확하



고 결실이 올라오는 초여름에 추가로 500kg을 채취할 예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원순 출하 시기 도래로 임업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목반은 ‘이형두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광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남제전 기간’에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두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박효준기자

함평군, 나비축제 개막 앞두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엑스포공원·습지 등 드론으로 집중 방역

함평군은 제26회 나비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주변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방역소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함평군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제를 만

들기 위해 축제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드론으로 엑스포공원, 습지 등 취약지역을 방역한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마을경로당, 주요 관광지, 정화조 등 1000여 곳에 친환경 유충구제 약제를 투입했다.

최근 더위로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 2회 이상 함평읍 하천, 공원 등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방역 소독을 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나비축제를 안전하게 치를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도 화분 물받이, 물웅덩이 고인물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